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30 밥은 꿈

국수는 역경 속에서 꾸는 꿈

사방을 둘러봐도 무엇을 파는 곳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야외 테라스가 마련된 가게 입구에서 고작 발견한 것은 '타래면'이라고 쓰인 코딱지만 한 간판이다. 호기심이 발동해 가게 안을 성큼 들어서본다. 드문 드문 놓인 테이블이 여유로운 운치를 자아내고 천장 한쪽에는 굵은 전선줄이 실타래마냥 감겨있다. 도회적이면서도 깔끔한 인테리어가 유행을 선도하는 압구정의 거리와 잘 들어맞는다. 안팎의 분위기를 조목조목 살펴본 결과, 커피와 간단한 샌드위치 정도를 곁들여 파는 가게임이 분명하다. 쓴 커피라도 한잔 들이킬 요량으로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들여다보는데 이게 웬걸. 메뉴판에는 온통 국수 천지다.



도회적이면서도 깔끔한 인테리어의 국수집

"다들 처음에는 커피를 달라고 하죠. 간판도 생략했고, 오픈하면서 그 흔한 전단지도 돌리지 않았어요."

이 불황의 시대에 무슨 똥배짱인가? 하지만 가게 쥔장인 임사장의 전략과 두둑한 배짱이 왠지 얄밉지만은 않다. 시대를 거스르거나 앞서가는 생각의 이면에는 필경 그러한 배경이 있을 터. 이를테면 삶의 굴곡이나 굴하지 않은 소신 같은 거 말이다. 그러한 이야기 한 토막을 들어보고자 쥔장과 마주하고 보니, 가게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게 풍겨오는 인상이 그야말로 뚝배기다. 팔목에 감긴 굵은 염주알은 아마도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는 듯한데.

"어렸을 때 수덕사가 놀이터와 다름없었죠. 결국엔 원담스님한테 찍혀 유발상좌가 됐고, 그 바람에 법장스님의 사제가 되고 나중엔 또 법장스님의 유발상좌가 되었죠."(웃음)

골목 어귀를 지키다 지나가던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곤 해 유치장 신세를 질 뻔했던 사춘기 시절에 법장스님은 보호자가 되어주곤 했단다. 그렇게 방황하던 청년기에 스님의 경책에 정신을 차려 성인이 되어서는 성실한 사업가로 성공과 부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던 중 부인과의 사별과 사업이 부도를 맞은 위기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해 집을 감옥삼아 살던 시절도 있었더란다. 국수는 그러한 인생역경 속에서 재기한 임사장의 다시 꾸는 꿈이다. 그런데 하필 국수를 택한 것일까?

"국수를 워낙에 좋아하거든요. 특히 멸치국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예전에 양수리에 가면 멸치국수를 아주 잘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일하다가도 그 집 국수가 생각나면 양수리까지 가곤했죠."

임사장의 남다른 멸치국수 사랑은 장사에도 고스란히 적용돼, 타래면의 모든 국수 국물의 기본은 단연코 멸치다. 그 세세한 노하우까지 밝힐 수는 없으나 대충만 귀띔하자면, 일 년을 폭 묵힌 여주산 멸치에 다시마와 한약재를 첨가한 것이 그 비결이란다. 그의 국수에 대한 애착과 정성은 면발에서 더욱 드러난다.

"남들도 다하는 국수는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데서는 팔지 않는 국수가 뭐가 있을까 궁리하다 모시녹차국수를 개발하게 됐죠. 사실 처음에는 녹차메밀국수를 만들어볼 생각이었는데, 녹차의 쓴맛만 나지 도무지 푸른빛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시골사람들이 모시로 떡을 해먹던 생각이 나서 모시를 섞어보았더니 그제야 푸른빛이 돌면서 맛도 한결 좋아지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생경한 국수에 낯설어하던 손님도 그 맛을 일단 보면 이후로는 모시녹차국수만 찾는다는 게 그의 자랑이다. "남들과 달라야 성공한다"는 임사장의 사업방침은 음식재료뿐 아니라 그릇과 테이블, 심지어는 국수에 곁들이는 단무지에도 적용된다.

"일단 그릇은 놋그릇을 써요. 테이블도 자작나무로 직접 제작했고, 제가 인공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질색하니까 단무지도 식초랑 설탕만 넣고 직접 담가서 써요. 메밀도 원래 개인농가와 직거래할 생각이었는데, 행여 손님들이 진짜 국내산 메밀인지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봉평의 농협과 직거래하는 방식을 택했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나도 인생역경의 극복과 국수에 대한 사랑과 집념으로 이뤄낸 꿈의 국수 한 젓가락을 맛보련다. 이왕이면 매운 맛을 된통 봐야 인생의 단맛을 더욱 알 것 같기에, 매운 맛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타래범벅이라는 국수를 시켜본다. <계속>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36 소통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남녀 간 '차이점' 알아야 서로 더 깊게 이해

#대화 필요한 여자, 동굴로 숨는 남자

동의보감에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라하여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통한다는 문제는 우리의 육체 건강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흔히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도 하나의 art(여기서의 아트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란 의미로 쓰인다)이기에 본래부터 타고난 남녀 간의 차이점을 알아야 서로 더 깊게 이해 할 수 있고, 배우고 습득해야만 좀 더 행복하고 진실된 사랑도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남녀는 서로 뇌구조 자체가 다르게 타고났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상대를 바라보면 그 때부터 불행은 시작되고 괴로움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감정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를 원망하며 강요하는 것도 무리이고, 남성들이 자신들의 단순하면서도 무미건조한 감정 상태를 납득하지 못하는 여자들을 귀찮아하며 무시하는 것도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다툼과 갈등, 고통과 불행이 시작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 중에 하나가 서로 화가 난 케이스다. 일단 여자는 화가 나면 "우리 얘기 좀 해"로 운을 뗀다. 이 말은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 중에 하나이며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남자들은 정말로 할 말이 없어진다.

'내가 뭘 또 잘못한 걸까?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이 상황을 모면할까?' 이런 생각들로 멍해진다. 반면 남자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 채면 "또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하고 말문을 연다. 이 때 여자들의 대부분은 "별일 아냐, 아무 일 없어"라고 단호하게 얘기한다. 그럼 남자들은 정말로 아무 일이 없고 별일 없는지 알아듣고 '휴~~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자들의 별일 없다는 얘기에는 무척 많은 별일이 있고 어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자세하고 상냥하게 물어 봐 달라는 함축적인 뜻이 담긴 것이다.

그런데 서로 이런 '싸인'이 맞지 않다보니 이때부터 서로 티격 거리게 되고 급기야 여자들은 더 많은 얘기를 해보라며 꼬치꼬치 따지고 요구하다 안되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남자들은 정말 할 말이 없는데 더 이상 무엇을 얘기하냐고 소리치다 심하면 폭력적이 되고 안되면 그야말로 혼자서 동굴로 꽁꽁 숨어 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남녀 간의 생리이다.

홧병이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 분들 중에는 바로 이러한 부부간, 또는 연인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더욱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많다. 즉 "내 마음, 나의 상태를 너무 몰라주는 상대"로 인해서 혼자일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을 둘 사이에서 느끼므로 그 고통은 더욱 크게 느껴지고, 급기야는 혼자힘으로 해결이 안되니 병원까지 방문하게 되는 케이스들이다.

#갈등 푸는 어렵고도 간단한 방법

그러나 우리가 본래부터 타고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훨씬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늘어날 것이고, 무겁고 우울하게만 느껴지던 상대방의 입장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배려가 생겨날 것이다. 다음시간에는 화가 나고 열 받아 미칠 것 같아도 조금만 숨고르기를 하고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 내게도 쌓이는 울화 없이 상대와 시원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계속>



정성근 거사의

천년초 이야기 10

변비와 피부 회복에 탁월한 효능

지난 연재에서 천년초를 경험한 8명의 공통적 특징과 경험들을 언급했었다. 혹자는 그럴 것이다. 천년초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냐고…. 그럼 과연 만병을 통치하는 약이 과연 있을까? 필자는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허균 선생님은 동의보감에서 만병을 다스리는 처방을 우리가 주로 먹고 접하는 식품들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물론 의원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뭇 백성들에게 그들이 재배하고 섭취하는 음식들과 주변 산과 들의 효능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처방하려 한 것이라는 큰 뜻으로 집필했다지만 사실 이 연재의 초반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현대인들의 기능이상병(성인병)은 우리 섭생이 잘못된 것이 중요 원인이라 지적했다. 순수한 자연환경에서 자라고 난 식품을 섭취한다면 사실 웬만한 병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필자가 권하고 싶은 것은 가공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섭취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바쁜 도시 생활에서 그렇게 유지하며 먹고 산다는 것은 매우 큰 힘들다. 이상적인 건강식을 선택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필자는 조상님들이 큰 삼이라 불렀던 태삼(太蔘)천년초를 상복하도록 권한다.

한 주부의 사례를 들면, 그는 가정에서 건강식을 모두 갖춰 못 먹지만 천년초는 섭취하는 경우다. 이 주부는 위궤양과 갑상선항진을 앓고 있었고 딸은 변비에 여드름이 심한 상태였다. 이 가정에 스님 한 분이 천년초를 섭취해보라는 권유를 해주셨고 이들은 천년초를 생잎으로 먹기 힘드니 파우치에 담은 형태로 구입을 해서 먹었던 모양이다. 처음 한 달을 꾸준히 먹었는데 한 달이 다 지나기 전에 둘에게 호전 반응이 나타났다. 일명 명현반응 이라고 부르는 증상으로 소변양이 적어지고 손발이 퉁퉁 부었고 몸살을 앓았다고 한다. 너무 아프면 잠시 천년초 섭취량을 줄여 보라 해서 줄이며 계속 먹었는데 주부는 속이 놀랍도록 편안해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으며 딸은 변을 하루 한번 너무 시원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천식을 앓고 있는 가장은 피로감이 확연히 줄었다고 한다. 이 가정의 따님도 역시 필자의 처제처럼 말을 안 해도 꼭꼭 챙겨서 천년초를 먹고 있다고 한다. 천년초를 선물한 지인 중에 변비가 있었던 분이 있나보다. 삼일에서 사일 어떠한 때는 일주일이 넘게 화장실을 못갔던 모양이다. 하루는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선물해주신 천년초 먹으니 하루 한번 무조건 화장실을 보내는군요." 그러면서 매우 밝게 웃는게 아닌가? 천년초의 별명을 '하루 한번 화장실 보내기'라고 지어야겠다는 말을 덧붙여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선물한 나로서도 매우 기뻤던 기억이 있다. 이 분들이 겪은 일부 사례는 유독 변비가 아니다. 이후 피부가 좋아지는 것은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감탄으로 알게될 것이다. 전인적인 정상적 기능의 회복은 무엇으로 얻을 것인가? (02)780-0098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바로 그달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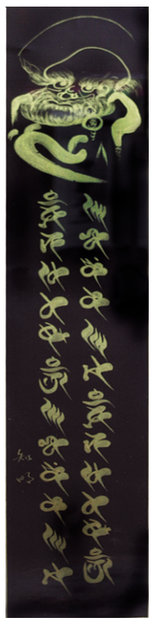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식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째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